

금융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코로나감염병이 통제되면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착용 해제에 이어 며칠 전엔 코로나 엔데믹마저도 선언된 현재, 많은 국민들은 봄의 훈기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작년 초 대비 2~3배 치솟은 대출금리는 하락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금의 금융시장이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과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코로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제도준비위원회(연준)는 시중에 무려 4~5조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에 연준은 2022년 1월 0.25% 이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2023년 5월 현재 무려 5.25%가 됐다. 짧은 기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맞이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역으로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한 조치와 정책추진은 자본주의 역사

에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매각,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에 대한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과 위시설 재원 및 이후 해당 은행에 대한 JP모건의 인수추진 등과 같은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은 연준의 긴축적 금리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행들은 총부채에서 예금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시기에 핵심 예금고객에 대한 수신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수익률을 찾는 고객층은 예금인출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역은행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이다.

한국도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0년 5월에는 0.5%로 낮췄다가 유가상승과 같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자 인플레이션을 위해 2021년 8월에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

50%까지 인상했고, 언제 정책금리를 또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필자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SVB 사태 이후 도드-플랭크뱅크 복원에 의한 연준의 은행건전성 강화조치와 함께 상업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 등에 의한 신용경색이 미국발 글로벌 침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신용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국제 환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비의 한 맥락으로 필자는 코로나감염병 발생후 2020년 3월말 이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에 의한 처리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코로나로 연장된 금융부채에 대한 부실의 현재화 준비(예를 들어 차주의 상환능력 분석과 대손충당금 설정 확대 등)와 함께 일정 기간 연기된 만기여신에 대한 세부적 상환방법(예를 들어 이자납입, 채무구조조정 등)이 지체없이 충실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P2P금융과 암호화폐시장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보통의 금융부 기자가 그러하듯이 처음 출입한 곳은 제2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였다. 가장 관심있던 분야는 핀테크 기업의 P2P금융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횡령 사고가 터졌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P2P기업도, 수익만 보고 뛰어들던 투자자도 아니었다. 금융당국과 국회의 대처였다. 이것을 예방할 만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들이 약 2년(2018~2020년)이 넘도록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으로 편입해 이름도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으로 바꾼 P2P금융을 또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의 P2P금융시장과 암호가상자산시장이 겹치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테라USD·루나 폭락사태와 ▲암호자산 대출플랫폼 셀시우스 파산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원인이 과거 전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라USD·루나 폭락사태를 보면 당초 테라 1개와 1달러어치의 루나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교환이 가능했다. 투자자가 시장에서 1달러 만큼의 루나를 매입하면 테라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반대로 테라 1개를 사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테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예컨대 테라 1개의 가격이 0.9달러가 되면 차익거래자는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한 뒤 또다른 투자자에게 루나를 팔아 0.1달러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테라 1개를 루나로 교환했기 때문에,

테라는 줄고 루나는 늘며 가치가 하락한다. 가격이 떨어진 루나를 팔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더해지면 루나의 가치 하락은 견잡을 수 없어진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한 영업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셀시우스 파산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3AC 파산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 투자,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노력을 들이게 된다는 의미다. 암호자산은 국경이 없어 피해범위가 P2P금융 정도에서 그칠리가 없다. 거래소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도 암호자산업체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와 투자자보호 규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9일 (음 3월 3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신운으로 밀의 사람에게 신망을 얻는다. 48년생 고집부리다 아군이 적군으로. 60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이익을. 72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마라. 84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르는 사람 막지마라.
- 소** 37년생 행운이 이어지니 훈훈한 인심을 보내자. 49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61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7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85년생 재운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 호랑이** 38년생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0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아가 쏜다. 62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7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덕은 잇는 법이 니 비뚤라. 86년생 오후에 갑자기 병문안 같일이 생긴다.
- 토끼** 39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51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에 감사. 63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75년생 같이한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 87년생 뿌린 대로 걷는다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 말** 40년생 사돈만나서 대인관계에서 유약하지 말도록. 52년생 자식의 승진은 자식에게 맡겨놓자. 64년생 우물가에서 송눈 찾듯이 서두르지 말라. 76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88년생 부동산 매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라.
- 뱀** 41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53년생 나의 결점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65년생 오후에 차량 안전에 주의. 77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89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만한 마음도 정리.
- 닭** 42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54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66년생 신운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78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하라. 90년생 이금심도(以琴心操)하듯 휴일날 취미생활을 하자.
- 양** 43년생 가족에게 뺏겼던 태도는 힘만 든다. 55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67년생 상사와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79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공색하다. 91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영하다고 했는데.
- 원숭이** 44년생 활력이 있지만 건강을 조사해 보자. 56년생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자. 68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80년생 금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92년생 연봉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베풀라.
- 닭** 45년생 어찌다가 슬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57년생 잘못된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마라. 69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81년생 가정에서 부하부순(夫和婦順)해야. 93년생 이른 아침부터 손조로운 하루로 즐겁다.
- 개** 46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58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니 일이 풀린다. 70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82년생 동료와 대인관계를 살뜰하게. 94년생 새벽에 일어나니 온 주변이 꽃동산이다.
- 돼지** 47년생 독단적인 결정은 손재수를 부른다. 59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 71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83년생 친구 만나 의외의 지출이 많다. 95년생 머리가 복잡하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후회 말라.

김상회의四季 이순신 장군

4월에 이순신장군의 탄신일이 있었다. 오늘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적 인물 중에 으뜸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일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대왕은 왕으로서 지존의 위치에 있었기에 생전은 물론 승하하신 뒤에도 누린 분이지만 장군은 사후 몇 백 년이 지나서야 그 공을 추존 받은 분이다. 그러한 분이 존재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우리나라 역사의 대표적 구국영웅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명장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한결 같이 국가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넌센스처럼 그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의 일생은 대부분 시기질투와 모함의 연속이었다. 임금인 선조에게 버림받았고 수많은 모함으로 파직되어 옥살이를 했으며 한 인간으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군사적으로도 관련 자료를 보자면 당시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장군이 정부와 명나라 육군에게 식량 무기 등이 부채 조종 등 각종물자와 진상품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갈 곳 없이 몰려드는 피난민들의 생계까지 직접 챙기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해야 했으며 장군이 어렵게 마련한 수군의 식량도 같은 편인 육군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마음대로 빼내어 갔다고 한다.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23전 23승 불패신화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냈다. 또한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보면 전투에 나가기 좋은 날도 주역 점수를 쳐서 뽑았으며 조선시대 문무를 겸비한 군인으로서 천지의 흐름을 읽어 전술에 활용한 분이다. 세상을 읽고 보는 탁월한 기운을 갖춘 분 가슴에 새겨지는 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능력 향상**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소수점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3	8	4		
		9	4	3	
5		2		1	8
1					3
8					7
6					5
7		3		6	
		5	1	8	
	8		9		5

	4		6		3
8	1		9		7
1			7		5
5			3		2
6		3		1	7
	5		4		2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9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